

“오늘은 엄마 품으로 꼭 돌아올거지?” 애타는 母情

“잠수사들 힘내세요” 복날 삼계탕 대접

날마다 뜬눈으로 날 새운

실종 10명의 가족들 모여

사고 해역 수색활동 지켜봐

“사랑하는 내 아들(딸)아! 오늘은 엄마 품으로 돌아와 줄거지, 엄마랑 아빤 100일 아니, 1000일 지나도 지금 여기서 널 기다릴거야.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어서 빨리 돌아와, 응?”

22일 불켜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뜬 눈으로 날 새운 엄마·아빠들은 아침 식사도 거르고 서둘러 체육관을 나섰다. 아이들이 잠들어있는 진도 맹골수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 수색활동을 벌이는 잠수사들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엄마·아빠의 마음속엔 이날도 사고 첫 날처럼 ‘내 아들이(내 딸이) 오늘은 엄마 품으로 돌아와 줄거야’라는 생각 말곤 없었다. 그들은 간밤에 번사체로 발견됐다는 세월호 실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답답하게 정부가 대처하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사고 해역에 나간 가족들을 제외하고 3~4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드문 드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고 초기 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수백명의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 취재진,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상당수는 이미 자리를 땀다. 실종자 명단에 남은 10명의 가족을 제외하곤 이미 가족을 찾은 탓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국민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자원봉사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체육관 안팎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계절도 바뀌어 체육관에는 소형 모기장도 등장하고 한약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들어섰다. 무더위와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을 위해 체육관 실내엔 냉방 시설도 가동되고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맘편히 쉴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00여일이 흐른 22일 실종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사고 초기에 복적이던 희생자 가족과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태다.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몇몇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진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종자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관 밖에는 조립식 주택 6개동이 들어섰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24시간 불켜진 체육관 실내에서 모여 지냈다.

혹시라도 시신이 수습되면 인상 작의를 설명한 공지를 보고 재빨리 찾아가야 하는데다 자식을 바닷속에 두고 부모만 편한 곳에서 머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한 때 체육관 안팎을 가득 메웠던 취재진도 이제

는 드문 드문 모습을 보일 뿐이다. 사고 초기 체육관 주변을 가득 메웠던 배식 차량이며 세탁봉사 차량, 샤워시설, 미용 시설 등 천막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지금은 불공을 드리는 간이 법당 등 종교 단체 천막들만 자리를 지켰다.

실종자 가족을 구분하기 위해 입었던 파란 조끼도 자취를 감췄다. 날씨가 더워진데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조끼를 입지 않아도 “○○엄마·○○아빠”하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다. 실종자 가족들

지원하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이제는 10명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이름을 알고 부를 정도로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색색의 종이엔 한자 한자 짝짝 눌러쓴 추모 메시지는 비닐이 덮였고 체육관 입구에 추모객을 위해 준비해둔 메모지와 펜은 추모객이 찾아들지 않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진도=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 두달 넘게 실종자 가족 건강행기는 안마봉사자들

“마지막 한 가족 남은 때까지 아픈 마음의 응어리 풀어줄 것”

목포에서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임정국(49)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두달 넘게 실종자 가족을 위해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안마봉사를 하고 있다. 임씨는 자신이 기부장으로 있는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남지부 회원 등 12명과 체육관 한편에 ‘안마·가족안정실’을 열었다. 안마사협회 15개 지부는 번갈아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주야간 2개조로 나뉘어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임씨는 “몸진 근육을 푸는 것과 더불어 우울증까지 걸릴 수 있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 안

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실을 찾는 가족들에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안마법을 알려 주면서 틈틈이 건강을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날은 안마사협회 부산지부 회원 4명이 전날부터 쉬들없이 안마봉사를 하고 있었다. 박규태(65·시각장애1급)씨는 부산 사투리가 짙게 베어나오는 말투로 “아직 대학교 안 간 아들·딸내미를 둔 젊은 사람들이 늙은 나보다 더 근육이 뭉친 걸 보니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모르시더”라며 5분도 채 안되는 휴식시간을 뒤로 하고 다음 안마봉사를 위해 가족안정실로 들어갔다. 휴식시간에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화장실에 가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처지지만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불평 한마디 할 수 없다.

박씨는 실종자 가족 어머니 안마를 하는데 “유병언이 발견됐다면서요? 우리 딸은 저 찬 바다에 잠겨 있을텐데 그 사람은 어떡하다 그리워건지...”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변변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해 묵묵히 안마를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간혹 고된 노동에 안정실을 찾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에게서는 몸에 서러있는 한을 느낄 수 있어서 누가 가족인지 봉사자인지 금방 구분이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실종자 가족이 10가족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모두 진도 체육관을 떠날 때까지 계속 안마봉사를 할 계획이다’며 “하루 빨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진도=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한 자원봉사 시각장애인이 실종자 가족에게 안마를 해주고 있다.

고 진기승씨 5·18묘지 안장 놓고

5월 단체·노동자 충돌... 7명 부상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이하 전북버스지부)와 5월 관련단체가 22일 노조원 안장 문제를 놓고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전북버스노조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옛 5·18 묘지에서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 안장을 전국민노동자장으로 치렀다.

고인은 지난 4월 30일 자신이 다니는 버스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해 뇌사 상태에 빠진 지 33일만인 지난 2일 숨을 거뒀다. 5월 관련단체는 고인의 안장을 반대하면서 운구행렬을 막아섰고 장시간 대치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5월 관련단체 회원과 전북버스노조원 등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관련단체는 “이곳은 아무나 묻히는 곳이 아니다”며 안장을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병언 브리핑’ 순천경찰 서장실 봉쇄 빈축

순천경찰이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발견 기자회견과 관련, 브리핑 직후 우형호 서장 집무실이 있는 2층 출입구를 아예 봉쇄해 빈축을 샀다.

경찰은 브리핑 직후인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우형호 서장의 집무실이 있는 경찰서 2층 출입구에 의경 5명을 배치한 뒤 취재진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른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부실한 초동수사로 수사력을 낭비한데 따른 근란한 답변을 피하기 위한 공색한 조치라며 논쟁을 벌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전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1.필사본
2.정가 : 32,000원(택배비 포함)
3.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4.불법 복제를 금함

2014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 ~ 대학생
· 단, 2013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0명, 대학생 0명)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4. 7. 7(월) ~ 7월 31(목)
· 최종선정 : 2014. 8월경 발표(2014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시 : 2014.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IV.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동구 남동 45번지 2층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 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주시민가족은 향우장학회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